



두산에 비상이 걸렸다. 포수 양의지(왼쪽)와 외야수 민병현이 26일 나란히 손가락 골절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25일 잠실 롯데전 4회말 공격 때 박세웅이 던진 공에 맞아 교체된 바 있다. 스포츠동아DB

두산, 뼈아픈 부상이 둘이나...

양의지·민병현 손가락 골절 '비상'

민병현, 실금 간격 넓어 공백 장기화 불가피
양의지, 공 받는 손 부상...신인 박유연 콜업

시즌 반환점을 앞둔 두산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전 포수 양의지(30)와 주전 외야수 민병현(30)이 26일 나란히 손가락 골절 판정을 받고 전력에서 제외됐다.

전날 사구(死球) 때문이다. 25일 잠실 롯데전에 나섰던 둘은 4회말 공격에서 롯데 투수 박세웅을 상대하던 도중 병의의 일격을 당했다. 5번 타자 양의지는 시속 148km 직구에 왼손을 맞았고, 이어 타석에 들어선 민병현은 146km 직구에 오른손을 강타 당했다. 곧바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둘은 첫 번째 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붓기가 남아있는 상

항이라 다음날 추가검진에 나서기로 했고, 결국 26일 강동 경희대병원 정밀검진 결과, 양의지는 왼손 소지 중수골 미세골절, 민병현은 오른손 약지 중절골 골절 진단이 내려졌다.

두산 관계자에 따르면, 재활기간은 추후 결과를 보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분간 전력 제외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가락뼈가 붙을 때까지 공수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양의지의 공백은 타선은 물론 마운드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는 요소다. 공격과 수비를 통틀어 KBO리그 최고의 포수를 손꼽히는 양의지의 존재감은 야전사령관 그 이상이다. 26일까지 60경기에 나와 타율 0.323, 9홈런, 44타점을 올리며 중심타선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수비에선 영리한 두뇌 플레이로 마운드를 진두지휘했다. 두산 안방엔 현재 기존 포수 박세혁(27)이 있지만, 양의지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기엔 아직 물음표가 따른다.

민병현의 공백 역시 뼈아프다. 1번과 3번, 6번이 모두 가능한 민병현은 두산 타선의 핵심 엔진이다. 26일까지 팀의 전 경기에 하나 모자란 69게임에 출전해 타율 0.316, 8홈런, 39타점으로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수비에서도 외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유틸리티 자원이었다.

가장 큰 걱정거리인 이들의 복귀 시기와 공백 메우기다. 두산 김승호 운영팀장은 26일 전화통화에서 "우선 민병현의 상태가 좋지 않다. 실금 간격이 양의지보다 넓어 이를 고정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하다"면서 "양의지 역시 투구를 받는 왼손가락 부상이라 서두를 수가 없다. 둘 모두 계속해 진료를 받으면서 재활경과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7일 잠실 SK전에 앞서 신인포수 박유연(19)을 1군에 올려 박세혁과 함께 포수진을 꾸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봉준 기자 shuloul@donga.com

'6월 승률 6할' 삼성, 무엇이 달라졌나

5회까지 앞선 경기 8전승 '철벽불펜' 부활
장원삼·최충연 효과 6월 불펜 방어율 1위

바닥을 찍고 일어난 삼성의 6월 기세가 무섭다. 시즌 초 연이은 투타 엇박자로 최악의 출발을 알렸던 삼성은 21일 '탈 팔찌'에 성공한 뒤 최근 4연승을 질주 중이다. 6월 들어 삼성이 기록한 승률은 0.619, 10개 구단 중 3위에 해당한다. 살아나는 타선, 버티는 선발진 등 삼성은 전반적인 지표에서 시즌 초와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삼성만의 반등에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뒷심'이 살아났다는 점이다. 6월에만 9번의 역전승을 거뒀는데, 이는 10개 구단 중 독보적인 1위 기록이다. 5회까지 뒤진 14번의 경기에서 무려 5번(1위)을 뒤집었다. 이 중에는 7회까지 뒤진 경우도 무려 12번이나 있었는데, 삼성은 역전승으로 4승(1위)을 챙겼다.

삼성 특유의 지키는 야구가 부활한 것도 한몫했다. 삼성은 5회까지 앞선 8번의 경기에서 8전 전승을 기록했다. 7회까지 앞선 경기에서는 9승 1무를 기록해 이 부문에서도 1위 승률을 자랑했다. 종합해보면 6월의 삼성은 역전승은 거두면서 역전은 허용하지 않는 팀이다.

삼성의 이런 뒷심이 가능한 이유는 높아진 마운드 덕분이다. 쫓아가는 경기에서는 실점을 최



삼성은 6월 승률 0.619를 기록, 시즌 초와 눈에 띄게 달라진 성적을 내고 있다. 반등에 성공한 삼성은 안정된 불펜진의 힘을 앞세워 매 경기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 뉴스시

소화하고, 앞서가는 경기는 지키면서 승리 팀 특유의 공식을 완성시키고 있다. 삼성 불펜진은 4월에만 1승8패 2세이브 3홀드 방어율 5.48을 기록해 당시 최악의 효율을 보였다. 그러나 6월 들어서는 5승3패 7세이브 9홀드 방어율 3.74(1위)를 기록해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보였다. 7~9회 피안타율은 0.263(4월)에서 0.237(6월)로, 방어율은 5.04에서 2.86으로 크게 낮아졌다.

두꺼워진 불펜진도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부터 불펜전에 합류한 '베테랑' 장원삼(34)은 통틀리프부터 필승조까지 기여도가 높

다. '특급 신인' 최충연(20)은 6월부터 불펜진에 합류해 알토란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시즌 초 심창민(24), 장필준(29)으로만 버티던 불펜전력은 어느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다만 잠재적인 위험요소는 존재한다. 이들 4명 이외의 불펜진은 여전히 '물음표' 전력이라는 점이다. 시즌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이 4명의 피로도는 누적되고 있다. 삼성이 반등효과를 지속시키려면 이들 4명의 부담을 나눠줄 확실한 불펜 전력이 더 필요하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한화 비아누에바 염종 재발...2~3주 재활
한화 구단관계자는 26일 "비아누에바가 오늘 서울의 한 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오른쪽 팔꿈치에 염증이 발견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며 "재활 기간은 2~3주 가량 소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아누에바의 올 시즌 3번째 엔트리 말소다. 4월28일에도 팔꿈치에 염증이 발견돼 1군에서 제외됐고, 5월21일 대구 삼성전에선 벤치클리어링에 휘말려 왼손 소지 인대가 파열돼 5월24일자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11일 복귀 후 3경기에서 1승1패, 방어율 4.05(20이닝 9자책점)의 성적을 거둔 뒤 또 다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다.

편지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차·포 떼고도 1위...NC의 괴력

베이스볼 브레이크

김경문 감독 전략전술 타의 추종 불허
박석민·맨쉽까지 합류 땀 더 무시무시



NC 김경문 감독

2017 KBO리그 올스타전은 7월15일이고, 18일부터 페넌트레이스 후반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대부분 팀은 이미 시즌 반환점을 돌았다. 26일까지 LG(71경기)와 두산(70경기)만이 시즌 144경기의 절반인 72경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 8개 팀은 72경기 이상을 치렀다.

사실상 레이스 후반기에 돌입한 KBO리그 순위는 NC와 KIA가 공동 1위다. KIA는 지난해 스토브리그 때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투수 윤석민의 부상과 수슬이라는 약재가 있었지만 사상 첫 프리에이전트(FA) 100억원 시대를 연 최형우 영입과 양현종 잔류, 공격적인 외국인선수 투자 등 객관적인 전력이 악화됐다. FA시장에서 외부 보강도 없었다. 5강도 힘들다는 평가도 있었다. NC 김경문 감독은 이호준, 이종욱 등 베테랑 선수들을 1군 스프링캠프에서 제외하며 세대교체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NC는 2017시즌 반환점을 공동 1위로 통과했다. 놀라운 점은 NC는 외국인 에이스 제프 맨쉽과 4번타자 재비어 스크릭스가 모두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1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전력이 탄탄한 디펜딩 챔피언 두산도 마이클 보우덴의 공백 속에 중위권으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괴력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다.

●현란한 김경문의 전술전략

최근 넥센 장정석 감독은 "5회 이전에 승부수를 거는 NC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NC의 전술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A팀 B감독은 "솔직히 NC와 경기하면서 당황한 적이 있다. 경기 초반 승부를 거는 전략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이 됐다"고 털어놨다.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야구기자 레너드 코페트는 명저 '야구란 무엇인가'에서 '대부분의 감독은 팀 승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하면서도 '어떤 감독은 질 뻔한 게임을 몇 차례 승리로 바꿔 놓는다. 어떤 감독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라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공연히 주 무르다가 망쳐 놓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경문 감독은 주축 전력의 연이은 부상 속에서도 현란한 전술전략으로 팀을 1위로 이끌고 있다. 김 감독의 승부가 가장 극적으로 담겨져 있는 경기는 23일 마산 KIA전이다. 선두경쟁을 펼치는 팀을 상대로 김 감독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 선수들은 이런 감독의 작전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날 김 감독은 2-0으로 앞선 4회말 선두타자 4번 나성범이 2루타를 치고 나가자 망설임 없이 5번 모창민에게 희생번트를 지시했다. 이어진 1사 3루, 6번 권희동에게는 스퀴즈 번트 사인을 냈다. 경기 초반 중심타선의 연이은 번트 작전에 KIA 내야진은 당황했고, 내야안타를 허용했다. 1점을 더 추가해 3점차로 점수를 벌인 NC는 6회부터 김진성~원종현~임창민까지 리그 최강을 자랑하는 불펜을 투입하며 승리를 지켰다.

이미 3연전 중 2승을 따내고 시작한 25일 경기도 대단했다. 선발 강윤구가 2회 2실점하자 곧장 필승 불펜 이민호를 조기 투입하고 원종현을 7회 마운드에 올리며 3연승 싸움을 마무리했다.

김 감독은 최근 부상으로 약해진 팀 전력을 자신의 역량으로 매우며 전력을 극대화했다. 에이스와 4번이 없는 차·포를 다 댄 상황이지만 그 사이 젊은 선수들도 키우고 있다. 김 감독은 "경기 초중반 대타를 내고 대주자로 바꾸는 경기가 종종 있다. 부상 없이 정상적인 라인업이라면 경기 중반까지 더 기다리며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 전력에서는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C의 괴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박석민과 스크릭스, 맨쉽까지 모두 7월 1군 전력에 합류한다면 KIA와 시즌 마지막까지 선두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에는 완벽하게 팀 전체를 장악한 김 감독의 전술, 그리고 초고액 베테랑 선수들도 긴장하며 경기를 뛰는 내부 경쟁이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6월 방어율 1위' 박종훈이 말하는 힐만 매직

"내가 어떤 환경서 잘 던지는지 아는 듯"
구위 최고점 찍는 90구 안팎서 칼교체

SK 잠수함투수 박종훈(26)은 15일 한화전을 며칠 앞두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갑자기 감기 몸살이 극심해진 탓이었다. 박종훈은 "원래 어지간히 아파서는 병원에 안 가는 성격이다. 그런 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웃었다. 너무 잠겨 힘들어 간 것이 아니었다. 15일로 예정된 자신의 선발등판을 꼭 지키고 싶어서였다.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좋았던 감(感)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2012년 1군 데뷔 이래 비로소 최고 페이스(14경기 74.1이닝 6승4패 방어율 3.51)를 보여주고 있는 박종훈의 구위는 6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26일까지 6월 방어율(22.1이닝 방어율 1.61)만 놓고 보면 KBO리그 전체 1위다. 박종훈은 "상황에 따라 '불렛만 내주지 말자', '안타만 맞지 말자'고 생각하고 던지는데 잘된 것 같다"고 웃었다.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야구가 풀리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구위가 그만큼 유지된다는 반증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박종훈은 힐만 감독의 좋은 영향을 말

는지 아시는 것 같다."

실제 박종훈은 26일까지 총 14차례 등판했는데, 100구를 넘긴 적은 딱 한번(4월11일 롯데전 103구)이었다. 80구대에서 교체된 적이 5차례나 된다. 이렇다보니 6이닝 이상 투구가 4회이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게임을 만들어주는 선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힐만 감독은 또 하나의 영건 문승원(28)에게는 100구 이상을 의도적으로 던지도록 하고 있다. 20일 NC전 완투승도 그렇게 이뤄졌다.

결국 투수의 구위가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순간을 힐만 감독은 파악하고 있고, 그 데이터에 맞춰 선발을 맞춤형으로 쓰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알고 있다. 힐만 감독이 윤화섭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곧잘 1군 엔트리에 제외하지만 박종훈은 예외로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종훈은 80~90개 투구수로 4일 휴식 후 등판을 지속하는 것이 최적 효율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박종훈은 "만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 2회(화요일, 일요일) 등판이 감각 유지에 편하다"고 말한다. 투수가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자신감을 얻고 내려오게 한다. SK가 결코 강하지 않은 마운드 구성으로도 위력을 발하도록 유도하는 '힐만 매직'의 근본적 힘은 합리성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